

임정봉 시인 시조집 ‘모악산아 말해다오’

시조 형식 빌려 현대적 감각·주제로 표현 출간

우리 고장 완주 출신으로 경기 안양에서 활동 중인 임정봉 시인이 시조집 ‘모악산아 말해다오’를 출간했다.

임 시인이 발간한 이번 시조집은 전통 시가인 시조 형식을 빌려 현대적 감각과 주제로 표현했으며, 도서 출판 국보에서 발간했다.

임 시인은 익산 출신으로 작고하신 가람 이병기 시조 시인 이후 시조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조집 ‘모악산아 말해다오’는 임 시인이 일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삶의 깊은 성찰과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내어 한국 전통 문학의 정수를 담아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임 시인이 자연과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시선을 시조라는 형식에 담아 내었기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단언한다.

특히, 이번 작품집에서는 자신이 태어나며 보고 자란 전북의 명산인 모악산의 지리적 정신적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깊이 탐구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기에 더 잔잔한 감동을 준다.

그의 작품 세계는 정성수 시인이 서평을 통해 “시조라는 전통적 장르를 통해 현대적 주제



임정봉 시인 시조집 ‘모악산아 말해다오’

와 감성을 담아내려는 시인이 진지한 노력이 담겨 있다”며, “이번 작품은 독자들에게 시조의 미학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고 동시에 현

대적 감각과 주제를 포용하는 시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평한다.

임 시인의 이번 발간한 책을 읽은 독자인 김병학 다산물 회장은 “임 시인의 문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인 이 책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특별히 기대된다.”고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했다.

임정봉 시인은 전북 완주 구이에서 태어나,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전주공업전문대학(현 전주비전대학교)을 졸업한 후 건설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문학적 재능을 살려 문학 활동에 열정을 쏟아 한맥문화에서 2007년 시 부문 신인상 수상, 2009년 국보 문인협회 시조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혜성같이 등장한 중견 시인이자 시조 시인이다.

이후 임 시인은 국보 문인협회 사무총장과 시조분과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시조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임정봉 시인은 국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명인대전에서 시조 명인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한국민족정신진흥회에서 주관한 현대한국인물사 등재되어 그의 문학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는 등 폭넓고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 중앙성당 설계도면, 전주한지로 복본

세계 각지 유무형 문화유산 복본화 작업에 단초 역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주 주교좌중앙성당의 설계도면을 전주한지로 복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당은 전주시와 함께 지난 2017년 바티칸교황청의 편지 기록물과 2018년 원불교 초기경전을 전주한지로 복본화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중앙성당은 전주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1947년 11월 1일에 설립돼 1967년 전주교구의 주교좌성당이 됐다. 특히 전통적인 성당 건축양식과 함께 독창성과 차별성을 띠는 중앙성당 건물은 말뚝지정과 생대공 기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련 설계도면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기록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당은 중앙성당 설계도면(7면)을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가능한 전주한지에 복본화를 진행,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앞둔 한지를 통해 세계 각지 유무형



문화유산의 복본화 작업에 단초 역할을 했다.

김도영 원장은 “과거 바티칸의 기록물과 원불교의 초기경전을 복본화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전주한지와 중앙성당이 만나 전주한지 설계도면이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전주한지를 활용한 보존화 작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홀로그램 세계로 초대합니다”

익산시, 28일까지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 전시회 개최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술의 대중화와 산업 생태계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홀로그램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8개 홀로그램 기업이 참여해 △투명디스플레이 △매쉬스크린 △광학홀로그램 △플로딩 홀로그램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한다. 최신 홀로그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전시회와 연계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시회를 포함한 △익산창년시청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등 4곳을 방문한 사진을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익산시 홍보 캐릭터 ‘마뱀’ 인형을 증정한다.

시는 홀로그램 기술 확산을 위해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객 누구나 홀로그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익산창년시청과 석제품전시홍보관에 소품을 조성하고, 익산역에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창년시청에 위치한 소품 ‘홀로스테이션



(HOLOSTATION)’은 청춘의 꿈을 주제로 한 물입형 전시를 선보인다. 석제품전시홍보관에 조성된 ‘스톤&스토리(STONE&STORY)’는 익산의 석재 역사와 문화를 홀로그램 콘텐츠로 재해석한 미래지향적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다양한 홀로그램 제품을 전시하고 샌드아트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품과 체험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년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해 홀로그램 기술의 대국민 홍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전시회는 홀로그램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홀로그램 기술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인터넷 넘어선 동네서점… 익산 ‘다이어움’ 효과 입증

2024년 사회조사… 동네서점 이용률 43.7%로 인터넷서점 추월

익산시의 ‘도서구입 다이어움(多로움) 정책 지원금’ 사업이 시민의 책 구매를 인터넷에서 동네서점 중심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익산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 시민의 43.7%가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한다 고 응답해, 인터넷서점 이용률(43.3%)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에 밀

려 위축됐던 지역서점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서점업계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2023년 9월부터 ‘도서구입 다이어움 정책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익산 사랑상품권인 다이어움을 이용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기본 인센티브 10%와 정책 지원금 10%가 지급된다.

임실군, 정기스칸 후예들이 선사하는 ‘몽골 전통 공연’ 성료

임실군과 몽골과의 상호 문화교류의 첫걸음인 몽골 전통 공연이 군민 80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지난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몽골인들의 삶 자체인 말을 추억하기 위해, 죽은 말 뼈·갈기·꼬리털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마두금 악기연주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금을 울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독특한 창법인 ‘호미’는 몽골의 산과 강, 바람, 동물의 소리를 사람 목소리로 표현하여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화려한 몽골의 전통춤은 보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며, 우리말로 부른 아리랑은 관람객들이 같이 부르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마지막으로 부른 정기스칸 노래는 우리에게도 아주 친근하여 다 함께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심 민 군수는 “몽골제국 정기스칸 후예가 전하는 광활한 초원의 바람을 담은 선율과 훈이



짓는 연주에 춤, 노래가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한 매력적인 무대였다”며 “감동적인 공연을 해 주신 마라지 예술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제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